

데스크 시국



채희중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장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감염자 수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다. 날마다 이메일로 날아든 방역 당국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문 방송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확진자 수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사회부라는 업무 특성상 인명 피해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 생긴 습관이다. 한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미안마 뉴스를 쟁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달 전쯤, 미안마 군부 쿠데타 직후 시위 과정에서 첫 희생자가 나왔다는 외신을 접했을 때만 해도 으레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려니 했다. 하지만 희생자는 꾸준히 늘어 최근 25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일 미안마 외신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조준 사격 희생자만 벌써 250여 명

미안마 시위에 눈길이가 가는 것은 희생자가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5·18민주화운동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마치 40년 전 광주에 악몽이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미안마에서 되풀이되는 기시감을 느낀다. 미리 짜놓은 각본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군사정권의 학살이 시작되고. 도심 한 복판에 등장한 장갑차

너무나도 '오월 광주' 닮아 더욱 슬픈 미안마

와 대검이 장착된 소총을 든 군경, 곤봉으로 시민을 구타하는 진압군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마조마했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닥쳤으니, 결국 정조준 사격으로 숨지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살육에 맞서 연일 벌어지는 장엄한 저항의 물결은 5·18의 도시 광주의 가슴을 울린다.

미안마 군부의 시위대 진압은 광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장악을 위해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대 해산이나 무력화 수준을 넘어 아예 제거를 통해 저항의 싹을 자르기 위함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광주에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작전 전면배치했는데, 그 부대원 중 일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미안마 군부도 소수민족 반군과 교전했던 정예부대와 잔혹하기로 유명한 보병사단을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

양국의 진압군들은 자국민을 상대로 머리를 정조준해 살인하는 등 마치 적과의 전쟁을 치르듯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흥분한 군인들은 시위대 외에 주택가에도 무차별 난사해 집안에서 총을 맞아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 5·18 때에도 이성을 잃은 계엄군이 주택에 총을 난사해 사망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던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도 총을 난사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면서 외부 국가의 개입 전에 국내 상황을 수습하려는 군부의 조바심이 학살로 이어지는 모습도 판박이처럼 닮았다. 시위에 앞장선 교사와 대학생이나 시위와 무관한 주부 등 희생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수많은 희생자 중 유난히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죽음이 있다. 지금도 우리 기억에 남아 살아 숨쉬는 '5월의 금희'와도 같은 미안마 '태권 소녀'.

광주 춘태여성 3학년이던 박금희(당시 18세)는 1980년 5월 당시 수차례 헌혈을 했었다. 5월21일 오후에도 부상자가 많아 혈액이 부족하다는 가두방송을 듣고 광주기동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귀가하던 중, 복부에 총탄을 맞아 숨진 상태로 다시 기동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주의 금희와 미안마의 태권소녀

미안마 태권도대회 우승자였던 '치알 신' (19)은 지난 3일 만델라이시에서 열린 시위 도중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치알 신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슴에는 A형이라는 명찰을 달았다. 그는 사고 전에 페이스북에 "나는 (혈액형이) A형이다. 만약 내가 총을 맞는다면 각각과 다른 장기를 기증해 달라"고 적었다. 무자비한 살상과 죽음의 공포도 사랑을 실천한 소녀의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학살과 탄압에 굴하지 않는 그녀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한다. 민중의 피와 희생 없이 세워진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는가하는 희생자가 너무나 많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안마 시민들은 '광주 5·18'이 폭도들의 난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부활한 것처럼 미안마 또한 그렇게 비상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광주 5·18에서 자신들의 미래와 희망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도 40년 전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겪어야 했던 그 어둡고 두려웠던 절망의 날들. 미안마에서는 지금도 80년 광주 5·18이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안마에 대한 광주의 연대 정신과 그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중앙회 부회장

몇 해 전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선다섯에 홀로 되어 막내가 선 살이 되도록 키워 냈지만 고춧가루 한 근이라도 자식을 주려 쓰러질 때까지 농사일을 하셨다. 홀로 거둥하시기 어려워져 자식을 집을 전전하다 요양원에서 두어해 지내시고는 훗날 쓰러지듯 아무 말씀도 없이 눈을 감으셨다. 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이 흩어머니 한 분 모시지 못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당장은 장례 절차가 우선이었다. 상조업체와 연락하고 장례식장을 정하고, 일가친척이며 친지들에게 부고하고, 문상객 맞을 준비와 음식이며 장지에서의 절차 등을 챙기느라, 정작 어머니에 대한 추모는 뒷전이 되었다. 밤 11시에 돌아가셨으니 자식을 하루만 고생하라고 가셨을 거라는 입에 발린 위로로 정말 어머니 뜻으로 믿고 싶었다. 이 손님 저 손님에게 고마워하며 술을 따르고, 고개 접대하듯 문상객을 맞으며 이들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몇 년 만에 만나는 사촌과 십여 년 전 근무했던 직장 동료, 친리 길을 달려와 준 친구들이 고맙고 반가웠어도 아들인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었다. 분향소를 지키며

장례문화, 지금이 바뀌 나갈 때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것을 고마워하고, 함께했던 날들을 추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야 했다는 후회가 문득문득 밀려든다.

환절기 탓인지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장 분위기가 두어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대응 단계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100명 이상은 동시에 조문할 수 없고, 조화도 전혀림 길게 늘어선 경우가 드물다. 시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친인척들이고 조문객들이 오히려 적어진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나는 지금이 우리 장례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 체면치레를 위해 허장성세하듯 장례식장을 잡고 조화를 북도 가득 채우며, 밀려드는 문상객 수를 자신의 영향력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가족들이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인이 바라는 장례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1가구당 평균 장례비용은 1380만 원이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초라하게 모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의와 관을 고르고, 조문객들에게 소홀히 할 수 없으니 VIP실이나 특실에 빈소를 차린다. 결국 장례비용의 70~80%는 조문객들이 대부분 남기고 나가는 음식대나 불에 태워 버리는 일회용품들이다. 경사에는 못가더라도 예사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니 슬픔을 나누는 의미로야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이지만 진실으로

고인을 추도하려 가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장례식은 없을까?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듯 작은 장례식도 몇 해 전부터 생겨나고 있다. 값비싼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혀드리고, 나무관 대신 종이관을 사용하며, 조문객 대부분이 남기고 가는 음식을 내는 대신 다과로 바꾸어 음식쓰레기도 줄이는 친환경적인 방식이다. 다만 이것은 비용을 절약하지는 것이 아니라, 애도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화려한 예식이 아닌 고인의 생을 기리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조문객을 맞나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상하는 것 역시 상주들에게 얼굴모양을 찍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할 사람들만 장례식장을 찾는 것도 서로를 배려하는 일일 수 있다. 조의를 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문은 발인 전에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윤리대 규범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장례는 가신 분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자리이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 모이기가 힘들어진 지금, 크기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작은 장례식으로 바뀌 나갈 수 있다면 나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사회적 비용도 줄어 훨씬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기고



명창환 전남도 기초실장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 운동회나 소풍은 설레고 즐거운 날이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달리기 못했던 필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축제인 운동회가 고역 중의 고역이었다. 달리기에서 꼭 1등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잘 달리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면 좀 못 달려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의문들이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다. 한 일간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40.7%)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았다. 평등·자유·협력·성장 등 다른 선택지의 비중은 각각 10% 남짓이었다. '공정'이 한국 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이크 셀렐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불공정'의 원인을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능력주의'에서 찾는다. 재능도 전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한 행운의 결과로 본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으로 뒤쳐진 약자에게도 보상과 혜택을 주고, 모든 국민이 골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우선이다

고루 혜택을 받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은 오랫동안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그 돈이 서민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신봉해 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우선이다' (The Last, The First)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가장 약한 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인 외침이 아니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세상은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세기 말에는 '글로벌 경제 격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가 화두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후 변화'와 '코로나 등 감염병의 확산' 그리고 '인구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가 크고 일상화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하게 능력주의를 강요받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전체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킬 때 전체가 허약해지기 쉽다. 역사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았을 때 더 쉽게 달성되었다. 특히 21세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인구 소멸과 같은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균형 발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활 속 탄소 절감을 실천하고, 지역 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소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로 선 지역들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할 때만이 이 위기를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재정 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하고 재정 분권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에 희망이 보인다.

다만 균형 발전을 향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에서 실제 손에 잡히는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철학에 입각한 정책 설계를 탈피하고 더 어려운 지역, 더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분권 추진에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방식보다는 지역간 특성과 격차를 고려한 교부세 배분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과 지역이 최우선이 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 본다. 달리기 잘 못하는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당당하게 경주에 참가하고 상도 받고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社說

'양자 대결 압축' 서울시장 선거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2번 제1야당 오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야권 단일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둔 어제 오전에야 결정됐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단일화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으며 접합도 쉽지 않았다. 밀고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됐고 맘에도 없는 양보전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만큼 야권 후보 결정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사퇴 표기가 추가되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 이름도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오 후보는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

한 명령을 반드시 받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고 울먹이면서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장 선거가 양자 대결로 압축됨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선거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양당은 흑색선전이나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있다

광주 지역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병원에서 천차만별이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검사·수술인데도 3~4배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동물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의 예를 보면, 엑스레이(X-ray) 검사는 2만 2000원~6만 6000원, 반려견 건강검진은 16만 원~45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하루 입원비도 3만 3000원~5만 5000원으로 병원마다 달랐다. 혈액 검사는 최저 3만 3000원에서 최고 13만 2000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무려 10만 원 가까이 됐다.

광주 지역 63만 가구 중 15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진료비 편차와 그에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

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험'을 꼽고 있다. 물론 민간 보험사들이 이미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펫(pet)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연령·질병 제한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진료 체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물 의료도 사람처럼 병원마다 서로 다른 진료 항목이나 치료행위 등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도가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비롯해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초진·재진, 예방접종, 복부초음파 등 20가지 진료 항목의 가격을 각 병원이 자율 공시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할 경우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월손 아저씨'로 유명한 시사만화가 정은경은 '사설이 쓰지 못하는 기사는 칼럼이 쓰고, 칼럼이 쓰지 못하는 것은 만화에서 다룬다'는 말로 시사만화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신문에 실리는 시사만화의 매력은 촌철살인의 풍자와 해학에 있다. 글의 힘을 강조할 때 '칼보다 펜이 강하다'고 하는데 '펜보다 강한 것이 붓'이란 말에서 시사만화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1909년 처음 등장한 한국의 시사만화는 1990년대까지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네 컷 만화'였다. '고바우 영감' '월손 아저씨' 등

만평 논란 유감

대구의 매일신문이 만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5·18 당시 계엄군의 시인 폭행 장면에서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만평을 즉각 내리고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5월단체가 법적 대응을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5·18을 회화 화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아무런 촌철살인의 풍자라 해도 때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총기 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이라고 표현했다가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주간지 사르르 에브도의 만평 논란도 유명하다. 에브도는 2015년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조롱한 만화를 게재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총기 테러에 12명의 직원을 잃었다. 이 사건 5주년을 맞아 지난해에는 논란이 됐던 만평을 특집호에 다시 게재했다가 파키스탄 청년의 테러와 파리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을 불렀다.

대구의 매일신문이 만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5·18 당시

계엄군의 시인 폭행 장면에서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만평을 즉각 내리고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5월단체가 법적 대응을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5·18을 회화 화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아무런 촌철살인의 풍자라 해도 때로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경주거 1(일간)		우 61482 경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